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 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적산 신라소 대사

당황제 직속의 토벌군인 무령군은 서주 절도사의 말과 달리 해산이 늦어졌다. 헌종에 이어 목종 원년 때까지 유지되었다. 무령군이 산동의 치청절도사 이사도 군사를 물리쳤지만 하북의 성덕(成德), 노룡(盧龍), 위박(魏博) 절도사들이 당황제들에게 계속 반항했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 정년의 다리 치료도 해를 넘겼다. 그래도 정년의 다리 상처는 늦가을이 되면서 빠르게 아물기 시작했다.

장보고는 절도사의 허락을 작년엔 받았지만 무령군을 떠나지 못했다. 정년과 적산 신라소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그랬다. 정년이 장보고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정년은 스스로 결심한 뒤 밤에 장보고에게 말했다.

“성님, 혼자 서주를 떠나부씨요.”

“동상은?”

“내 다리는 낫고 있소. 인자 군마도 쫓간 타기도 허요. 성님이 나 땀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라.”

“탐진을 떠날 때부터 우리는 은제나 한 맴으로 살았네. 동상을 놔두고 어처케 혼자 떠나갔는가?”

“성님이 떠나도 될 이유가 생겼그만요.”

“이유가 뭐가? 알고 잘네.”

“지 꿈은 장수가 되는 것이었다. 무령군이 해산될 거 같지 않은게 나는 여그서 더 있어 붙라요.”

“여그서 장수가 되고 잘다는 것인가?”

“성님만 군중소장 되라는 뱀은 읍지라. 하하하.”

“동상 맴이 그렇다든 헐 말이 읍네만.”

“지가 아조 여그서 있지는 않을 거요. 장수가 된 뒤에는 성님 옆으로 가야지라.”

장보고는 무령군에 남겠다는 정년을 만류하지 않았다. 탐진을 떠날 때부터 정년의 꿈은 장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정년은 장수가 된 뒤에는 장보고 옆으로 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만류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그라든 동상 맴대로 허소. 은제든 적산 신라소로 오소. 인자 나는 장영 군관허고 헌 약속을 지켜야겠네.”

장보고는 군막 방에서 정년과 각자의 침상에 누웠다. 멀리서 찬바람에 실린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기름불을 끄자 부엉이가 군막 방 부근까지 날아왔다. 부엉이 날갯짓 소리가 푸드덕푸드덕 하고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마치 찬바람에 나뭇가지들이 거뿍거리는 소리 같았다. 장보고가 말했다.



“동상 자는가?”

“성님이 널 간다고 함께 잠이 안와부요.”

“널 아침에 떠날라고 허는디 스님헌테 전해주소. 은젠가 한번 찾아 뵈겠다고 말이네.”

“천태종 그 스님 땀시 우리가 땀을 다잡은 것은 사실이지라.”

“나는 으쩍지 살아서는 중생구제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한다는 스님 말썸에 땀이 끌리드라고.”

“성남도 인자 천태종 신자 다 되부렸소잉.”

“천태종 신자든 아니든 중생구제하고 극락왕생한다는 대장부가 아니 겠는가?”

“성님 말썸이 지당허요.”

두 사람은 자정이 넘어서야 토막잠을 잤다. 닭이 휘치는 소리에 눈을 떴다. 동창으로 솟덩이에 불붙기 시작한 잉걸불 같은 먼동이 보였다. 동쪽하늘에는 어느 새 놀이 붉게 널리 번지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장보고는 절도사에게 갔다. 절도사는 장보고를 보자마자 당 목종이 신라 경하사(慶賀使) 사신을 인덕전(麟德殿)에서 접견하고 연회를 베푼 뒤 차등을 두어 사은품을 내려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신라 헌덕왕이 경하사를 당나라에 보낸 것은 별세한 헌종을 조문하고 황제가 된 덕종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장보고는 당황제가 포상으로 주었던 호마(胡馬)를 탔다. 호마는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정년이 호마 등에 오른 장보고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다. 장보고는 어깨에 뒀던 활을 만지기만 했다. 어젯밤에 자정 무렵까지 미리 작별하였으므로 서로가 따로 할 말은 없었다.

이윽고 장보고는 적산 신라소로 방향을 잡았다. 호마가 앞발을 쳐들자 품속 복주머니에 있던 은전들이 달싹거렸다. 적산까지 가는데 노잣돈으로 충분했다. 며칠은 달려야 적산에 도달할 터였다. 장보고는 발로 호마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다. 그러자 호마는 흠뻑뻑을 일으키며 비호처럼 달렸다. 서주성을 벗어나자 끝이 안 보이는 들판과 구렁이 나타났다. 추수가 끝나버린 들판과 구렁이는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이랏! 이랏!”

호마는 훈련이 잘 된 명마다웠다. 장보고가 말고삐를 잡아당기거나 호마의 옆구리를 가볍게 찰 때마다 힘차게 내달렸다. 장보고는 마을이 보여도 쉬지 않고 지나쳤다. 하루에 팔십 리를 가도 적산까지는 여러 날이 걸렸다. 서주성과 적산은 산동반도의 서쪽과 동쪽 끝이었다. 따라서 장보고는 일조 신라촌에서 이삼 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적산으로 올라갈 요량을 했다. 물론 해가 기울면 노포를 찾아가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야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첫날밤은 산자락 밭두렁 움푹한 곳에서 야영했다. 무령군에서 전투훈련 때 익힌 대로 낙엽을 무덤처럼 모아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땅바닥에서 냉한 습기가 올라왔지만 견딜 만했다. 낮에 햇볕을 받았던 낙엽의 온기가 뜻밖에도 새벽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둘째 날에는 다행히 노포에 들어가 몸을 씻고 따뜻한 음식으로 허기를 해결했다. 노포 주인은 장보고에게 많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손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적산으로 가는 길이지라.”

“적산이요? 거기는 그래도 해적들이 덜한 곳이니 위험하지는 않겠소.”

“해적덜을 소탕헌 줄 아는디 또 생겼그만요.”

“바다 건너에서 신라군이 왔을 때는 바다가 조용했지요. 허나 신라군이 떠난 뒤로는 또 예전같이 험악해졌대요.”

장보고는 바다의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는 노포 주인이 고마웠다. 노포 주인이 말하는 신라군이란 헌덕왕이 보낸 원병 김원웅의 순천군이 틀림없었다. 장보고가 술을 한 잔 시켜놓고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장께서는 바다 사정이 훤히그만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게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소? 바닷가에서 소금을 굽고 살다가 해적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곳으로 이사 와서 사는 사람에게 들었소.”

“혹시 그 사람도 신라인이 아닌게라?”

“맞아요. 여기도 신라촌이 있지요. 이쪽 신라촌 사람들은 토박이들에게 땅을 빌려 주로 농사를 짓고 살지요. 허나 신라인들은 느긋한 농사 보다는 빨리 자리를 잡고자 바닷가에서 소금이나 숯을 굽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해적덜이 신라인덜을 못살게 구는그만요.”

“바다에서만 해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물으로 들어와서도 분탕질하고 사라져요. 우리 노포도 피해를 본 적이 있대요.”



장보고는 일조 신라촌에 가서 휴식을 취하려던 생각을 버렸다. 당구들이

다시 발호하여 바닷가에 사는 신라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시라도 일찍 적산에 도착하여 바다의 당구들을 토벌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장보고는 일조 신라촌을 들르지 않으므로 해서 이틀을 앞당겨 적산에 도착했다.

적산 신라소에는 압아 장영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장영이 신라소 밖으로 나와 장보고를 깎듯이 맞이했다.

“대사 벼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도사께서 주청해서 제수헌 벼슬인디 여그까정 소문이 났는지 몰라 부렀네.”

“대사님, 신라소까지 내려오는 관아의 소식도 번개 같습니다.”

절도사들이 신라인에 관한 소식은 신라소까지도 보내주는 모양이었다. 대사(大使)란 신라 사신 우두머리를 당황제가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그러니까 대사란 신라사신의 정사(正使)에 버금가는 관작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신라소 우두머리를 높여서 진즉부터 대사라고 불러온 호칭도 관례이기는 했다. 장보고는 신라소의 군사현황부터 파악했다. 장영에게 물었다.

“장 압아, 이곳 신라소 군사는 몇 명인가?”

“모두 스물다섯 명입니다. 군관이 다섯 명이고 군사가 열 명입니다.”

장보고는 적산 신라소 군사 규모에 안심했다. 탐진현 치소는 물론이고 대구소의 군사보다 두 배쯤 많았다.

“훈련만 잘 시키면 되겠그만.”

“다른 신라소보다 군사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사님이 오실 줄 알고 산동지방 다른 신라소 압아들이 군사 한두 명씩을 보냈습니다.”

“고마운 일이그만. 나는 당장 산동반도 바다에 발호허는 당구덜부터 청소할 것이네. 그럴라믄 군사덜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허네. 장 압아가 책임지고 강군으로 맹그시게.”

“예, 대사님.”

“신라인덜은 농사보다는 당인(唐人)덜과 달리 소금과 솥을 구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덜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라인덜을 보호허는 것인께 명심허시게.”

장영은 내심 놀랐다. 자신은 배 한 척을 가지고 등주에서 명주까지 다니면서 신라촌이나 신라방의 장삿배를 호위하는데 그쳤는데, 장보고는 바다의 당구들부터 일소하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장보고의 생각은 그보다 더 나아가 있었다.

“우리가 소금이나 숯을 가지고 장사를 직접 허문 신라인들은 안심하고 더욱 진력해서 자리를 싸게 잡을 것이고, 우리는 구입한 소금과 숯을 당인덜에게 비싸게 팔아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네.”

“대사님,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대사님의 앞선 생각에 놀랄 뿐입니다.”

장영은 장보고에게 마음속으로 충성을 맹세했다. 재당신라인들의 염원인 당구들을 퇴치하고 그들의 생업을 도와 부자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장보고의 복안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절도사의 지시를 받아 신라인들에게 세금징수를 하고 치안을 담당하던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라인들의 생업을 돕겠다는 장보고의 말에 감동했던 것이다.

“여그 적산에도 신라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나아지든 나는 반다시 사찰을 지을 것이네. 절이 생긴다면 신라인덜이 보다 행복할 수 있겠제. 가족은 물론이고 남을 돕고 살다가 죽어서 극락왕생한다고 갈치는 곳이 절이라고 생각허네. 내가 무령군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어.”

등주나 일조, 명주에 신라원이 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장영은 장보고의 극락왕생이란 말이 다소 낯설었다. 그러나 장영은 사찰을 짓든

말든 그것은 장보고의 뜻이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장보고는 오후에 실제로 군사를 점고했다. 그런데 오전에 보고받았던 장영의 군사현황은 정확했다. 장영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대사님의 존함은 장보고이시다. 오늘부터 우리 신라소를 지휘하실 우두머리 어른이시다. 여러분은 대사님께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영의 소개를 받은 장보고는 인사말을 짧게 했다.

“장영 압아 휘하에서 고상헌 여러분을 치하한다. 나는 산동반도 신라방, 신라촌을 다스리는 대사로 추대받았다. 적산 신라소가 산동반도 대표신라소가 된 것이다. 신라소가 강해질라고 허믄 여러분이 강헌 군사가 돼부러야 한다. 장영 압아의 지시를 따라 오늘부터 밤낮으로 군사훈련에 임할 것이다.”

군사 점고를 마친 장보고는 적산포구로 나가 배를 점고했다. 배는 크기가 장삿배만 했지만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부러져 새끼줄로 동여매어 있는 등 낡고 초라했다. 당구들의 표적이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장보고는 장영에게 명했다.

“당장 신라촌에서 선공을 불러 배를 수리하게. 배를 수리한 뒤에는 우리 신라인들의 소금과 숯을 싣고 양주와 명주를 땡겨오겠네.”

“그곳에 장사꾼들을 아십니까?”

“양주에는 왕씨 성제가 있고, 명주에는 한 번 뵈 적이 있는 절도사와 장사꾼덜이 있네.”

장보고의 일처리 방식은 속전속결이었다. 그러나 장영은 군사들에게 훈련만 시키면 되었기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다. 무역은 장보고의 몫이었는데 수완을 발휘했다. 신라촌과 신라방을 순시했을 때 모두가 장보고를 환영했다.

신라인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 집안에 쌓아둔 소금과 숯은 엄청났다. 장보고는 목수 출신을 불러 모아 배부터 건조했다. 동시에 장삿배 두 척을 건조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수리한 배와 합치면 세 척을 보유하는 셈이었다. 세 척이라면 신라인들의 물건을 선적해서 양주와 명주 등에 파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양주의 왕씨 형제가 장보고를 힘껏 도울 터였다.

마침내 장보고는 수리한 낡은 배를 타고 황수바다, 흑수바다를 순시했다. 당구들을 토벌한다는 소문이 돌았는지 당구들의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당구들이 산동반도 바다를 떠나 명주 부근인 백수바다

이남으로 물러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강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대사님, 당구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신라소 군사들이여,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여. 알겠는가!”

장보고가 생각해 낸 병법은 아니었다. 탐진현 미산포 별장이 장정들에게 즐겨 쓰던 병법이었다. 어쨌든 뱃길이 안전해졌으므로 해상을 통한 무역은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적산 신라소 군사들의 전력은 배가되었고,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네 달 후. 뱃길을 순시한바 있는 장보고는 신라방에서 가져오는 소금과, 신라촌에서 말기는 솥을 배 두 척에 가득 선적했다. 소금과 솥은 양주에서 왕씨 형제에게 반을 팔았고, 나머지는 명주에서 다 소진했다. 단 한 번의 무역으로 재당신라인들은 물론 장보고까지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장보고의 탁월한 역량은 곧 신라 헌덕왕에게까지 전해졌다. 헌덕왕은 장보고에게 신하를 보내 신라 사신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장보고는 흔쾌하게 응했다. 배편뿐만 아니라 신라 사신이 등주나 명주, 양주에 도착하면 군사를 보내 장안까지 호위하도록 했다. <계속>